

- 녹취록 -

6세기동안의 식민지배와 볼리바리안의 꿈

발표 : 파히드 페흐난데즈(Farid Fernandez) 베네수엘라대사관 정치분야 1등서기관

알폰소 도하도(Alfonso M. Dorado) 볼리비아대사관 대사 정치경제전문

토론 : 김대봉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조직위원

사회 :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페흐난데즈 : 먼저 내 소개를 하면 나는 프랑스주재 베네수엘라대사관의 1등서기관으로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사람이다. 나는 정치관계 일을 맡고 있다.

“봉기한 국민들을 구제해준다면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겠다”

1989년 베네수엘라에서 중도좌파로 새롭게 정권을 쥐게 된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신자유주의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발표되자 많은 민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가두시위를 하고 여론이 매우 시끄러웠다. 당시 사회민주주의계열의 정부는 이 시위대를 막으려고 대단히 노력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600~3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세기 들어 도시에서 생긴 이 폭력진압사태는 가장 심각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태였다. 이 시위는 누가 지휘한 게 아니라 전부 자진해서 이뤄졌다. 그래서 이 시위에는 어떤 지도자도 조직도 없었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일이 있던 3년후인 1992년에는 베네수엘라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하게 했다. 그러자 군대에 있는 젊은 장교들이 나서서 하나의 반군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1989년 모든 민중봉기에 차출되어, 이 때 가장 피해를 입었던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민중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당시 장교들을 이끈 베네수엘라장교가 바로 우고 차베스중령이었다. 물론 잡혀서 투옥되었고 2년동안 감옥에서 지냈다. 쿠데타를 한 그날 저녁, 차베스는 “봉기한 국민들을 구제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텔레비전영상에서 “우리 베네수엘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는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자기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최초로 베네수엘라정치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리바리안개혁은 계속된다

1989년과 1992년 3년간의 민중봉기와 군대봉기라는 2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볼리바리안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10여년후인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차베스는 당선되자마자 즉각 개혁을 해 베네수엘라의 헌법을 바꿨다. 국회와 국민투표 등 일련의 과정을 밟은 헌법개정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직과 정치

조직을 비롯해 큰 방향전환의 헌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했다.

빈곤퇴치를 계속 진행한 10년동안 빈곤층이 1/3로 줄었다. 그때 봉급이 무려 800%가 인상되었다. 그래서 광산, 유전, 기타 여러 자원으로 생기는 부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 원하면 알려줄 수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볼리바리안개혁은 장기적인 깊은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구조가 6세기전부터 내려온 식민통치에 뿌리박혀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식민지에 이어 앵글로색슨의 지배가 있었다. 앵글로색슨이란 미국, 영국을 말한다.

스페인식민화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산업적, 경제적으로 영국의 식민통치가, 그 다음에는 미국의 식민통치가 계속되었다.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결과였다. 베네수엘라의 독립은 바로 차베스의 개헌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볼리바리안은 비단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다. 다른 남미나라들에도 적용하는 개혁정책이다. 유능한 안도스토아라는 연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는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독립한지 2세기만에, 이제 겨우 조금 우리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우리 볼리바리안 동지들이다. 볼리비아, 쿠바가 그렇고 에콰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도 우리의 동지들이다. 작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 등 세 나라도 말해야겠다. 그 외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

볼리바리안, 라틴아메리카의 동맹은 2004년에 시작됐다. 상호간 서로 돕고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줘서 완성시키는 상호동맹, 단결이다. 그리고 각 국가의 국권을 철저히 존중한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국권, 국익을 존중한다는 것은 6세기동안 다른나라의 식민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다는 것과는 연관된다.

중남미의 단결은 자본주의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

간단히 몇마디 더 하고 결론을 맺겠다. 우리 남미국가들 사이의 동맹을 통해 어떠한 실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말하겠다.

의료관련 프로그램으로 라틴아메리카사람들중 93만7000명이 시력을 되찾았다. 장님들이 눈을 뜬 것이다! 문맹이 많기 때문에 문맹퇴치운동을 했다. 초중고부터 시작해 대학교까지 이어진다. 의료, 교육에 이어 금융관련 알바은행을 창설했다. 여성권도 향상시켰다.

알바에 가입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도 이 개혁을 적용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농업관련 기업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 서로 연결 시켰다. 식료품생산, 에너지개발, 통신산업, 의약산업, 건설건축산업, 수도권계를 전부 협조하고 있다. 관광진흥에 관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더 있다. 오늘 다 말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돈을 벌려고, 하나의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내일 우리 베네수엘라부스에서 오후3시30분에 알바(ALBA)에 대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은 토론이 될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온 동지에게 발언권을 넘겨드리겠다. 딱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다. 이러한 국가간의 단결단합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국가간 서로 단결, 단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에 원유를 주고 콩을 받아오는 교환무역을 한다. 이것은 원유장사를 하는 중간을 통하지 않고 물물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다. 그러나 볼리비아동지에게 발언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초청해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단결해 전세계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전세계가 살아가는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덕원 : 지금 튀니지총선거에서 여러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여기를 방문했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페흐난데즈에게 질문이 있다.

우선, 첫째로 베네수엘라의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정당(PSUV) 안에 여러개 정파가 있다. 그 정파들이 단결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알바에 속한 나라들의 공정한 자유무역질서, 즉 구상무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자립경제, 중공업이나 농업 등을 강화하는 토대위에서의 무역이 될 때만이 진정으로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각 나라의 자립에 기초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차베스의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그 선언에 나오는 표현은 좀 미묘하게 되어 있지만 맑스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맑스보다는 유토피아적인, 즉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그 21세기사회주의가 맑스주의를 부정하는지에 대해서다. 우리 포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변혁은 가능하다고 단언하는데는 베네수엘라혁명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제창할 때 맑스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부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재해석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베네수엘라사회당과 2009년 개헌국민투표

페흐난데즈 : 베네수엘라사회당의 단결에 대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베네수엘라사회당은 처음에 각각 다른 그룹, 정파들이 모여서 시작했다. 사실 2006년 차베스대통령이 재선되었을 때, 24개 정당이 동의투표해서 재선된 것이다. 24개인지 26개인지 정당들이 모였을 때, 이 정당들의 이름을 다 모아보니 정당약자들이 가득 찬 '수프'였다. 그만큼 정당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군소정당들이 많았는데 이를 기본으로 신당을 창당했다. 그 정당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 창당했다. 차베스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지지자들이 바탕 하나 없이 새로 출발하는 당을 만든 것이다.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굉장한 혼란이 오기도 했다. 각각 다른 의견을 좀 더 조합해서 통일해야하니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다. 그 때문에 2007년 개헌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이 정당은 매우 최신 정당이다. 그래서 다시 2009년에 개헌국민투표를 했는데 이번 결과에서 우리는 모든 다양한 의견이 합일점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여기 참가한 수많은 지지자들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당선됐다.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새로 교육된 신세대가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그런 정치세대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볼리바리안혁명을 계승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카리브해 섬나라, 시가 50%의 원유를 얻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다. 이 무역은 알바성원국들 사이의 물물교환이다. 물물교환은 상대방국가와 반드시 협정을 맺어서 쌍방이 사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참가국가들 사이에 모두 사인해야 한다. 알바의 기본원칙이 양측 국가의 완전 합법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리브해의 평화협정을 예로 들겠다. 카리브해의 작은 20개 나라가 모여 협정을 맺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조그만 섬들이다. 충분한 원유공급을 바라는 각 섬나라들의 조건을 받아주는 계약을 했다. 이 나라들도 사실은 원유 판매 중간상인들하고만 늘 거래를 하고 있었다. 원유를 경매하고 관리하고 독점을 휘두르니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들이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자본주의나라들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알바 이후 이 섬나라들은 시장가보다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았다. 이들 나라들은 원래 원유가격의 50% 가격으로 할인된 원유를 사들였다. 나머지 50%는 원자재나 교육자재 같은 다른 물품구입에 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사 200명을 항상 채류시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돈은 기금 조성에 쓰인다. 이 기금을 가지고 또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는 알바 회원국들 사이에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

21세기사회주의, 수입이론만으로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21세기사회주의에 관한 답변이다.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볼리바리안혁명(볼리바리안혁명)은 맑시즘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맑스의 사상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볼리바리안은 맑스의 이론만은 아니다. 거기에 다른 의제와 이론이 더 들어가 있다. 볼리바리안혁명이라는 것은 맑스주의의 문제의식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또 다른 각각의 사회주의이론들도 있다. 여러 이론들을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다. 볼리바리안혁명에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정신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즉답하자면 차베스대통령은 맑스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남미라는 지형적인 조건과 역사적인 조건이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게 따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1960년대 남미국가에서 맑시즘이론만을 도입했던 나라들이 예외 없이 전부 몰락하고 실패했다. 이론 자체가 하나의 수입이론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은 맑시즘의 이론과 자국의 이론, 즉 자국의 조건에 맞게 새로 가야 한다. 볼리바리안사상은 국가, 민족주의, 국유화, 국영화(국영화)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국과 함께 지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리바리안 단일의 기본혁명정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부족한 것과 풍족한 것을 나누다

도하도 : 프랑스주재 볼리비아대사의 정치경제담당자문으로 있는 알폰스 도하도다. 볼리비아대사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전했다. 21세기사회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조덕원소장에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알바에 관해서는 베네수엘라동지가 잘 설명했으니 잘 아실 것 같다. 특히 이 지역에서 알바의 역할과 가치, 이 지역에 대한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주길 바란다. 우리 알바의 제일 중요한 개념에서 첫번째는 지역적 차원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폭넓게 공유하고 나누는 점이다. 나누는 것은 국민들과 나라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 나누는 것이다. 합치고 단결하면 힘이 된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면, 우리 볼리비아의 전통과 문화,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 농촌의 한 지방 작은 곳에서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락따끼'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 락따끼라는 것은 1주일에 1번씩 마을사람들이 수확한 것을 전부 한군데로 모아 서로 각각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누게 되면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것을 또 다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당근만 생산하고 감자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나는 감자를 먹을 수 있고, 무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동분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금융이나 돈거래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바로 앞서 언급한 이 정신이 알바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본정신이다.

이것은 '경쟁으로 남의 것을 의존하면 더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동지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원유를 사고팔자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생산하는 사람은 원유를 내놓고 원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없는 것을 상호보완하는 그러한 정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문제가 좀 있다. 왜냐면 이것이 물물교환이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가 아니다. 가치가 각각 다른 것을 어떻게 교환하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가치기준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슈크르(sucre)'다. 이것은 일종의 가상화폐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 상품에 대해 하나의 화폐단위로 부여한다. 물물교환에 있어서 가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가상화폐다. 이 지역에서 알바에 의해 물물교환을 하는 것은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본 일종의 실험적인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물물교환시스템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거부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년말인가 몇달전 아스비커에서 식량 때문에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다. 이 식량난은 완전히 상상의외의 것이었다. 금융투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식량부족이 아니었다. 식량은 있었다. 그 먼 데까지 가는데 비싼 비용이 드는 게 문제였다. 결국 식량을 보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경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가상, 제조된 하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 상품이 따로 있고, 그 사이에 금융도 있고 투기도 있고, 이러한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대통령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생산에 기여하는 회전기금

베네수엘라동지가 설명했듯이 알바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건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결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서로 함께 하며 거기에서 은행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 만든 남미은행은 한마디로 라틴아메리카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남미은행은 다른 지역에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 투자한 자본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전혀 없다. 이 은행의 자본은 하나의 기본기금으로서 회전기금이다. 특히 이 기금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쓰인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데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서로간 상호교류도 있게 되고 상호관계를 증진하는데 쓰게 된다. 도로건설은 각 참가국들이 서로 단결하는 데 기본이 된다.

여기에서 무역이나 혹은 교환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알바에는 각각 다른 프로젝트가 똑같이 같은 위치에 서 있다. 거기에 'UNASUR'라는 남미국가연합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남미국가연합 산하로 모든 것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몇달 되었는데 온두라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온두라스가 알바에 가입해서 국익에 크게 이득이 되니까 이 관계 때문에 쿠데타가 난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끝내야겠다.

오늘날 우리 라틴아메리카가 하나의 길을 뚫었다. 이 길이 하나만은 아니다. 2개, 3개가 될 수 있다. 지구에 있는 각 전통과 풍습이 다르다. 알바는 우리 지역에 맞춘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알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특히 4개의 경제위기, 금융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원유문제 등을 겪으면서 알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감사하다.

전세계적으로 알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덕원 : 귀한 시간 내주어 감사하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남미국가연합(UNASUR)을 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등 중도실용적인 나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21세기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과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고 첨예할 것 같다.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넘어서야 하는 과

제들이 있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한가지 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즉 지금 현 물라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흐름과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도하도 : 브라질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다. 흐름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 일주일전에 브라질과 볼리비아가 직물수출관계협정을 맺었다. 그전에 이전에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결이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쌍무협정을 하나 맺었다. 내용은 마약단속이다. 이 마약단속은 볼리비아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사이에 관세가 대폭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이 안된다. 브라질과는 정치협정을 맺었다. 브라질과 우리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무역을 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물론 정치적인 개념에서 차이는 있다.

남미의 각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부 좌파다. 중도좌파도 있고, 물론 아주 극좌파도 있지만, 모두 좌파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봐서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단결을 해서 남미국가연합과 남미은행을 만들게 된 것이다. 페루나 콜롬비아는 우파정권이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여기에는 참여했다.

“우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우파든지 좌파든지 ‘단결’한다”

김대봉 : 첫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다. 남미가 전반적으로 남미국가연합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알바와 남미국가연합의 관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하도 : 알바리는 것은 원래 식료품이나 상업거래에 관한 것이고, 금융은 빠져 있다. 처음에는 알바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2~3개 나라밖에 없었다. 지금은 9개국이다. 남미국가연합에는 전혀 다른 국가들도 함께하고 있다. 남미국가연합은 훨씬 더 정치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가 연합이 된 것이 남미국가연합이다.

각각 전혀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있다. 유럽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갈등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부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선은 중요한 상호협력력이 많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50년 더 걸렸다. 우리는 유럽이 이 과정에서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려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우파든지 좌파든지 ‘단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나쁜던지 좋던지 간에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냐는 관점에 모두 일치하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알바리는 것은 실험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단결에 있어 하나의 보탬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진척시켜야한다. 보충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카리브해의 작은나라들과 물물교환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알바의 앞날은 장밋빛 이상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반대되고 토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만이 갈 수 있는 멀고 먼 가시밭길이다.

헌법개정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다

김대봉 : 최근 온두라스 군부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개입설이나 2002년 차베스반대쿠데타 등 미국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콜롬비아간의 군사협정, 58년만에 재창설된 미군함대 등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강화

되고 있다. 최근에 CDS, 즉 남미안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미에서 군사동맹의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그 전제로 볼리비아에서 미군을 철거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도 함께 설명해 주기 바란다.

도하도 :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 25일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국민투표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인디언들이 법개정에 의해서 투표권을 얻었다. 이 개정헌법에는 외국군이 볼리비아에 주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 외국군대가 바로 미군이다. 미국과 영국이 볼리비아에 간섭하는 역사를 보면 미국마약단속국(DEA) 경찰수사요원들이 주둔했었다. 이 법에 의해 이 사람들이 추방됐다.

2008년 볼리비아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뻔 했다. 그래서 미국대사를 추방시켰다. 그 다음 대사가 또 입국했는데 이 사람도 또 볼리비아에서 군사쿠데타를 음모하다가 추방됐다. 원조단체의 책임자들도 추방됐다. 경제협력을 위해 나와 있는 사람이 돈을 지원해 존재하지 않는 반정부세력을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권이 휘청거리도록 모사한 것이다.

신헌법은 두번째로, 볼리비아는 평화국가라고 선언했다. 평화헌법이어도 침입을 당했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원칙은 똑같다. 단결이 바로 힘이다. 그래서 남미국가연합이 상호방어를 목표로 한 협의체를 창설한 것이다.

온두라스에 대해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지리학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온두라스에 있는 미군기지의 존재다. 온두라스 일등 생산품목이 바나나인데 온두라스 바나나생산수출업자가 미국이 주가 된 다국적기업이다. 과거에 이 바나나생산업자들이 미국중앙정보국(CIA)과 연결돼 쿠데타를 모사해왔다. 온두라스가 알바에 가입하게 되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남미국가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끝>